

2021년 5월 반부패·청렴 퀴즈 정답 및 해설

Q 1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매시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사무 공간 출입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

(해설) 갑질(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 (○)

- 상급자가 하급자의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하급자에 업무지시를 하여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갑질(업무 불이익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Q 3 (×)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는데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 4 (×)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해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됩니다.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나,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5 (×)

- 직무관련자와 만원 이하의 커피쿠폰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설)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Q 6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료부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곧바로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도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적절한 목적의 선물 수수 예시 >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Q 7 (○)

- 공무원이 본인의 소관 직무와 무관한 도서(예시 : 공무원 수험서적)에 추천사를 써 주면서 기관명과 직위를 기재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도서의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기관 명칭 및 직위를 기재하여 추천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직무가 아닌 사안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를 게시한 것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Q 8 (○)

-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신토록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상규 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닙니다.

Q 9 (○)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Q 10 (×)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설)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